

이흥재의 세상만사



소설 '객주'를 읽으며 우리 말글을 생각하다

“마누라에게는 오미자처럼 다섯 가지 맛이 있다”는 것도 이 소설을 통해 알게 됐다.

“여편네란 오미구존(五味具存: 다섯 가지 맛을 다 갖춘) 한 것일세. 갖 혼인한 여편네는 그 달기가 마치 풀이지. 그렇지만 살림 재미가 불기 시작하면 여편네란 장아찌 무같이 짭짤하네. 그 짭짤하던 맛깔이 좀 더 쇠면 이번엔 시금틸틸 개살구로 변하느니. 맛이 시어질 고비에서부터 가끔 툭툭 쏘는 매운맛이 나기 시작하는데, 고초당초 맵다지만 여편네 매운맛이란 땅벌인들 당적할까. 매운맛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뉘얼 때까지 쓰기만 하네.” 아마도 많은 남정네들이 진한 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대목이다.

서울객쟁이·전라도 개망쇠

요즘엔 이 소설이 드라마(‘장사의 신 객주’)로 만들어져 방영되고 있다. 김주영의 ‘객주’. 소설을 읽으면서 얻은 망외의 소득도 많다. ‘서울객쟁이’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중 하나다. 어느 한 지방 사람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별칭으로는 서울객쟁이를 비롯해 전라도 ‘개망쇠’, 강원도 ‘감자바우’, 충청도 ‘양반’, 경상도 ‘문둥이’, 그리고 이북에서 월남한 ‘삼팔따라지’ 등이 있다.

‘개’가 붙어 좋은 말이 별로 없지만 개망쇠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말일까. 조선시대에는 상놈

의 자식들을 망당쇠·돌쇠 등으로 불렀으니 ‘쇠’는 남을 낮잡아 이르는 말임을 금방 알겠다. 그럼 개망쇠에서의 ‘개’는 개(犬)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다. 사전에서 ‘개망’을 찾아보면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으로 풀이돼 있다. 개망은 갯벌인 것이다.

“1925년 전북 김제군 광활면 일대 갯벌의 대규모 간척 공사에 전국의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의 노력으로 해안 지형은 ‘개망’으로 바뀌었다. 간척민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개척한 그 땅에 소작인으로 눌러앉아 살면서 일본인들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그들은 인고의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들을 가리켜 ‘개망쇠’라 불렀다.” (한국학도문화전자대전)

서울객쟁이란 말은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 있다.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의 까다롭고 인색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물론 잘 깎으니 객쟁이인가 그리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듯했다. 그게 이 말의 유래를 모른 채 줄곧 지나왔는데 ‘객주’를 읽다가 ‘객쟁이’란 단어를 만난 것이다. 수표교와 배다리 등 서울의 여러 다리 밑 율집에는 객쟁이들이 득실거렸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구걸 행각을 하거나 남의 장사(弊事)를 지내 주며 살던 천한 무리였다. 아, 다시 한번 무릎을 쳤다. 서울객쟁이는 바로 이 객쟁이가 변한 말로구나.

소설 ‘객주’는 우리말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말다 보면 여기저기서 모르는 말이 튀어나와 애를 먹게 된다.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처지이건만 이렇게도 우리말 어휘 실력이 부족했던가-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용춘마니’ 같은 단어는 가슴에 깊이 박혔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말하기에, 소견이 좁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

‘애면글면’과 ‘낄끼빠빠’

곰비임비(일이 계속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 움니임니(자질구레한 일까지 좁스럽게 셈하거나 따지는 모양. 어금니와 앞니), 생개망개(하는 행동이나 말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모양), 언죽번죽(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고 비위가 좋아 뻘뻘한 모양), 애면글면(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소설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우리말들이다.

여러꾼(상점 앞에 서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물건을 사게 하고 주인에게 값을 받는 사람. ‘빠개’), 발쇠꾼(남의 비밀을 캐내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알려 주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썰뉘(매우 적은 액수의 돈, 길미(이억), 대궁밥(누군가 먹다가 남긴 밥), 너비야니(알파하게 지며 양념에 구운 쇠고기)... 이번엔 새롭게 알게 된 말들이다.

교과서에 나와 우리에게 친숙한 알포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은 모국어에 소재로 한 아름다운 단편소설이다. “내일부터는 독일어만 배워야 합니다.” 이날따라 정장을 한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온 어린 학생들에게 말한다. “프랑스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굳센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국어만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569호 한글날이다. 한글날만 되면 인터넷 언어의 규범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나는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다. 좋은 말은 살아남고 나쁜 말은 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가령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땀 빠져라)나 ‘장미단추’(장거리 미녀 단거리 추녀) 같은 말도 잠시 유행하고 말지 어떨지는 세월이 한참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세자(훗날 문종)에게 일찌감치 양위를 하면서까지 공들여 만든 세계적 발명품이다. 후손들은 그것을 잘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글날은 우리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말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을 가꾸고 꽃피게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혹시 이 글을 읽는 아이들이 ‘꼰대’ 같은 소리 그만 하라며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을 외칠지도 모르겠다. (주필)

지역 차별 철도 예산, 광주 14위·전남 7위...경북 1위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인 철도 예산을 특정지역 위주로 집행, 광주·전남 시·도 민들의 교통불편과 지역 낙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전정배(광주 서구 을) 의원이 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철도건설에 배정된 광주지역 정부예산은 모두 863억 2200만 원이었다.

이는 전국 15개 광역단체 중 14번째로 낮은 수치로, 광주 인구 수가 147만5745명(지난 2010년 통계청 기준)인 점을 감

안하면 지난 2년간 인구 1명당 투입된 평균금액은 2만9438원이다.

전남은 9만9383원으로 전국에서 7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은 36만512원으로 전국 1위였으며, ▲충북 26만3877원 ▲울산 21만3005원 ▲전북 20만6121원 ▲충남 14만3488원 ▲대구 12만6688원 등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은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전북지역 지난 2년간 인구 1명당 투입 예산은 11만 6710원으로, 강원권 7만1773원에 이어 두 번째다. 반면 영남권은 15만267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이 특정지역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차별 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정배 의원은 “정부가 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발표한 일반·광역철도 22개 사업 중 정상 추진된 사업이 2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경제성 평가에 편중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경전선의 광주 송정~순천 구간 등의 숙원사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역 소외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서울 업체에 위탁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없이 서울지역 중견업체에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8일 한전 등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업체 제한 입찰 또는 지역업체 기산점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한전KDN(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력거래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구내식당을 외주로 운영하는 8개 기업이나 기관은 모두 서울 소재 중견업체가 구내식당을 운영 중이다. 이는 지역업체에 대한 기산점이 전혀

없거나 기산점이 있어도 차별력이 없을 정도의 배점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계주 의원의 설명이다.

또 연간매출 및 전국 단위 규모를 갖춘 운영업장 개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배점기준을 높여서 영세한 광주·전남지역 업체와 수도권 중견기업과 큰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전당, 예산확보·기획 맡고...亞문화원, 창작·연구

조직·운영체계 윤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문화부 소속기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운영체계의 윤곽이 잡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예산확보, 기획, 국가간 해외교류 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아시아문화원은 공연·전시, 문화콘텐츠 창작과 제작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아시아문화원은 경영지원실, 공연사업실, 전시사업실, 교육사업실 3개 실과 장·제작센터, 아시아문화연구소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아시아문화원에는 최근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신입직원 56명이 근무하게 되며, 나머지 직원 40여명은 연말께 선발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원 운영체계의 특징은 문화전당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지닌, 수익사업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이다. 경영지원실에 문화사업부를, 공연지원실에 무대기술팀, 전시 사업실에 민중평화교육원 운영팀을 둔 이유다.

아시아문화원이 애초 문화전당 정보원의 기능이었던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창조원의 창·제작센터를 지역하게 된 것은 핵심 기능을 책임기관에서 맡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 반영됐다.

정부조직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기획운영과 연구교류과 문화창조과, 시설관리과 4개과를 중심으로 문화전당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지는 업무와 국가간 문화교류사업, 예산확보 등 굵직한 현안을 맡는



세종학당 한글날 퍼포먼스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2015 한글문화큰잔치'에 참여한 46개국 150여명의 세종학당 학생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한글날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복안이 반영됐다.

정부조직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기획운영과 연구교류과 문화창조과, 시설관리과 4개과를 중심으로 문화전당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지는 업무와 국가간 문화교류사업, 예산확보 등 굵직한 현안을 맡는

다. 정부 조직에는 50명(전문 계약직 공무원 18명 포함)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본격적인 조직 개편작업을 일단 유보, 문화전당 공식개관 이후에 새로운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신의 권장/질문의 권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광고영업사원 모집

창사 64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년제 광주일보사가
참신한 인원을 널리 구합니다. 신문과 방송, 모바일이
어우러진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체제를 갖춘 광주일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대상
 - 가. 모집부서: 광고영업직(남 0명, 여 0명)
 - 나. 최종합격자에게 회사 규정에 의한 직위 부여
 - 다. 전형방법
 - (1) 1차: 서류전형
 - (2) 2차: 면접
 - 라. 자격 및 대상
 - (1)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 각종 영업부문 경력자 우대
 -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재/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출서류
 - 가. 이력서..... 1 통
 - 나. 자기소개서..... 1 부
 -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부
- 전형일정
 - 가. 서류접수: 2015. 10. 5(월) ~ 10. 12(월)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10. 14(수) 개별통보
 - 다. 면 접: 2015. 10. 15(목)
 -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15. 10. 16(금)
- 서류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16층
 - 광주일보사 경영지원본부(☎ 220-0514 우. 61482)

*우편접수는 2015. 10. 12(월) 소인분까지 유효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주일보